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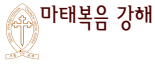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마 16:21-28)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거의 1000년 동안 포로와 식민지 생활을 하며 전전하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므로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해방시키고 구원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21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제 죽으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거칠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24절).

이것은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주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가정의 핍박도, 직장에서의 핍박도,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도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힘든 일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때때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Life of which One Denies Oneself

(Matt.16:21-2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sraelites who had lived their colonial life as prisoners for one thousand years and wandered from place to place expected that if Messiah came, Israel would be independent of politics and get liberation and freedom. But because Jesus became a lamb of God and undertook the sins for mankind, He came to the earth to make human beings liberate and save.

Jesus clearly said to his disciples what he would do as a lamb of God. Jesus said that he would suffer many times from the religious leaders, and would be killed but on the third day he would be raised to life (v. 21).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v. 22)

For such a long time because they waited, upon hearing for his death, Peter roughly rebuked Jesus. But Jesus positively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That is the reason why Peter did not think God’s work but man’s work.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v. 24).

That is very important lesson for the disciples. All of the disciples who follow Jesus first of all must deny themselves. And then, they mus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Jesus. Some think that their knowledge is alive, they deny Jesus words. The other thinks that what they want is so clear that they live their life without looking at Jesu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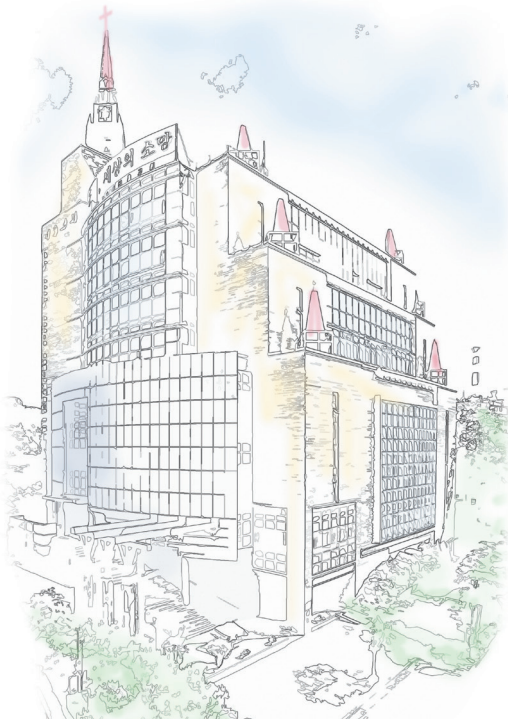
Everyone has his own cross. If we make a living as Jesus disciple, we are persecuted in home, at work, and in society. However, owing to your faith, if you are persecuted in order to live your life as Jesus disciple, it should be neither strange nor depressing. Jesus sai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Rejoice and be glad.” This means the prize we will receive from the kingdom of heaven is huge.

To take up the cross is far heavier work than to help other people receive benefits. The fact that I do not give up my heavy work helps benefit the church. In that I can afford heavy work, I can advance the Gospel.

We love Jesus like Peter. We live our lives by giving up many things for Jesus like Peter. We also have a mind to sacrifice our life for Jesus like Peter. Nevertheless, our love and enthusiasm can often be an obstruction from loving Jesus.

My beloved Christians,

The Apostle Paul says that the present sufferings cannot compare with the glory for us in the future. Those who avoid the cross are not Christians. By hearing Jesus’ voic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sincerely follow Jesus. Rejoice and be glad! Prize from the kingdom of heaven is hug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sincere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가을 밤의 '바자 자선음악회'

9월 19일(금) 오후 8시 본당

2014 사랑의 바자(위원장 : 서문석장로)의 준비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사랑나눔 A+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계 모금 활동이 1, 2, 8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헌옷 및 재활용 생활용품들이 교구를 중심으로 104호에서 접수되고, 1%나눔 및 10% 절제운동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나눔 A+ 운동은 다음 주일 마감**되며 그동안 모든 정성은 21일(주) 예배시간에 헌금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바자자선음악회'는 금주 19일(금) 오후 8시에 2층 본당에서 열린다. 우리 서울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들과 솔리스트들이 총출연하여 찬양곡과 함께 주옥같은 오페라의 아리아등 갈라 쇼

를 선보이며 우리 교회의 자랑인 핸드벨과이어와 아멘관현악단도 출연하여 아름다운 곡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품격있는 교회음악을 통해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전도의 통로로써, 찬양사역자들의 재능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청중들에게는 가을밤을 수놓는 선율의 앙상블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모금함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바자는 푸짐한 선물을 나누는 이벤트가 준비된다. 각 다락방원들이 바자현장에 모여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이름과 함께 바자본부(010-2211-2993)에 보내면 많이 참석한 다락방을 뽑아 시상한다.

일시 : 2014. 9. 19(금) 오후 8시
장소 : 서울교회 본당

제36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6학기 서울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에스라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구약의파노라마+Q.T.	토, 오전 10:30~12:00	장석남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0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3:00 (9/14~11/16)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1~10/19)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14~12/21)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9/16~11/18)	박영준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9/18~11/27)	구본혜 전도사	701호(어린이) 706호(어머니)
비블리오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9/20~11/29)	양세라 목사	702호(어린이) 601호(어머니)

B.M.W.
운동에 동참합시다



Bus



Metro



Walking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5)
(문 145) 에스겔의 예언(겔40-44)중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에스겔의 성전 예언은 오늘까지 성취되지 않은 미래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유대인 성전은 주전516년에 완성되었고 에스겔의 예언은 주전580년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성전과 그 행정상의 구역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에서도 에스겔의 성전 청사진을 만족 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주후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된 후 이슬람 모스크가 있을 뿐 그 자리에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상6-7장에서 제시된 첫 성전의 모양보다 더 구체적인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겔43:18-27에 언급된 희생제사만 보아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히10:11-14에서 구약의 제사는 성도의 죄를 씻거나 깨끗케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대속적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예표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단번에 (once for all)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속죄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겔43장에 언급된 제사는 죄 용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능은 오늘 교회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있는 용어들이 겔43장에 사용된 것이지만 새로운 뜻을 가진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일천 제사도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죽으심과 그가 우리를 위한 제물로 바쳐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시민의 예배와 찬양의 중심이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외친 후 수 천년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의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4 바자자선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자자선음악회’가 19일(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25일(목), 26일(금)의 ‘2014 사랑의 바자’에 앞서 우리교회 찬양대에서 섬기고 있는 음악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하여 바자에 품격을 높일 예정입니다.
 출연진들은 영감있는 성가곡과 음악성 높은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을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게 될 것 입니다.
 교회안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였던 음악인들의 격조 있는 레파토리를 만나보는 기회가 되며 모아지는 기부금은 탈북난민돕기와 생명의 우물파기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출연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바자에서 처음 진행되는 순서이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뜨거운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선음악회를 전도의 방법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무대를 마음껏 즐기시는 가을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승민 집사 (바자자선음악회 부장)



바리톤 고성진



테너 유태왕



테너 류충기



소프라노 최유현



아멘관현악단
(지휘 : 임범창)



그레이스핸드벨코어
(지휘 : 송재윌)



서울교회솔리스트앙상블
(지휘 : 백경화)



아멘관현악단



그레이스핸드벨코어



서울교회 솔리스트앙상블

교회사로 정리를 마치며

기록은 교회의 미래



김민철 집사
(순례자 차장)

우리 교회 꼭대기 종탑 바로 밑에 10평쯤 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곳을 처음 발견한 때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교회 20년사인 "코람 데오 서울교회 1991~2010"을 집필하던 중이었습니다. 20년간의 각종 교회 자료가 어지럽게 쌓여 있던 이 곳을 누군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 자료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5년간 밀

폐된 옥탑방에서 주일이면 청년들과 함께 교회의 발자취가 오롯이 적힌 수많은 자료들과 씨름하며 정리하고, 또 정리한 끝에 교회 기록물들의 체계적 정리 작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끝냈습니다.

모두 1,800여 개의 바인더로 정리된 이 기록물들은 당회의 당회록, 제직회와 권사회,남녀선교회, 교구, 교회학교 등 각 기관의 회의록과 주보 및 전단지를 비롯해, 흥해작전과 사명자대회, 비전2020운동 등 각종 사업의 기획안, 보고서, 증빙철, 장부 등 수만 건으로, 모두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성도들의 손으로 일일이 작성된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뛰어난 기록정신입니다. 20여년의 역사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 않게 치밀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이 기록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임하셨는지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귀한 기록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꾸준히 적어왔다는 점은 크게 감사할 일이며, 훌륭한 전통임에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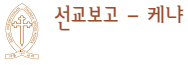
두번째 놀란 사실은 소중한 기록들을 잘 보존, 전승해야 할 터인데, 의외로 그런 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기록을 담당하는 섬김위원들이 있지만, 통일된 기록방식이 없고, 기

록에 관한 교육도 없으며, 매년 기록물들의 이관, 보존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록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이를 활용할 수도 없게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의 기록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15년간 방송기자로서 많은 일들을 취재,보도해온 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폰 등 IT기술과 매체, 즉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또는 '소식'의 전달량과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쁜소식'을 전하기 위해 종이 전도지를 만들던 시절에서 이제는 전도영상, 전도앱, 전도웹 등을 만들어 홈페이지와 SNS, 모바일 등을 통해 전파하는 시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축적과 관리,유통을 위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지는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록 관리'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나간 과거사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기록은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은혜와 감사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체계적 기록 관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전 교회가 기록의 선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다음세대에 '기쁜 소식'을 잘 가르치고, 이웃에 잘 전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케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아프리카지역의 에볼라 전염병이 조금은 안정되어가나 했는데 콩고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케냐는 2명의 의심환자가 괜찮은 것으로 판정되어 안심이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사이지역 에세키 초등학교에 콩과 옥수수 식용유와 양념 등 한달치 급식재료를 가지고 방문 배달하고 왔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척박하고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지역의 여건상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한국과 케냐 학생들과 푸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타국에서 단기봉사자로 섬기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자 기도합니다.



케냐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로 빈민 슬럼가의 많은 어린이들과,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업이 없이 떠도는 실업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개발되지 않은 이들에게 미래의 찬양 사역자, 음악목사, 교사로 키워내기 위하여 야마니 음악학교를 각 지역 슬럼가 마다 8지역에 세워 215명의 학생들을 전반적인 기초 음악 교육과 다양한 훈련과 구제와 말씀을 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양성 전문대학 과정인 야마니 콘서바토리가 세워질 것임이 학과 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 교실과 사무실을 빌려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일대일 결연되어 있는 학생들 위주로 24명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전기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상상할 수 없는 단칸

방 바닥에서 매트리스 하나에 의지하여 5~6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야마니 음악학교를 통하여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찬양과 말씀속에 양육되어지는 이들의 희망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가득 빵과 설탕, 과자, 웅가(케냐 주식;옥수수가루)등을 가지고 스텝 2명과 함께 부모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모습과 학교, 앞으로의 진로방향에 대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고 격려했습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물질과 사랑을 보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야마니 음악학교로 섬기는 205명의 아이들과 13명의 스텝, 마사이어린이 170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성령충만하고 강건하게 늘 새롭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케냐 복음화에 귀히 쓰임 받도록
- 군복무중인 아들 경근이가 맡은 업무 잘 감당하고 건강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대장:김혜인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임병창집사의 지휘로 "Lift High The Lord Our Banner",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수, 나의 주" 등의 여섯 곡을 연주하며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협연한다.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 14일(주) 섬김의교회에서 설교한다. 16일(화) 새한국국민운동 감리교 지도자(장로)모임을 소집한다. 17일(수) 한국로잔운동에 참여한다. 18일(목) 새한국국민운동 장로교 합동축 지도자(장로)모임을 소집한다.
- 공연: 15교구 신모란 집사 오페라 「김종달의 유언」 총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9월 19일(금)~20일(토) 오후 7시 30분
- 주일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9.14)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9.21)
- 금주의 식사 제공: 황정욱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케냐 김낙영 오정녀 선교사

기도제목

- 에볼라 전염병과 케냐 곳곳의 테러와 위험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학교 및 찬양의 보급과 찬양선교사를 양성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 양성 음악전문학교(콘서바토리) 선교센터 부지 구입을 위하여
- 반주자, 컴퓨터, 행정으로 봉사할 헌신된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믿음과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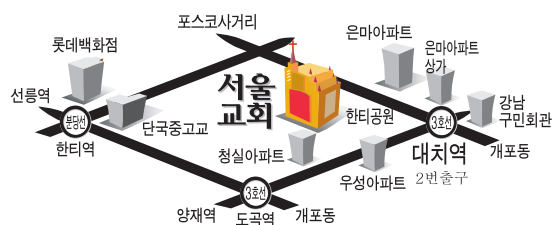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이번주 금요일에 있는 바자 자선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 9월 25일(목)과 26일(금)에 있는 사랑의 바자를 통해 교구가 하나되고, 교회가 하나되어 선한 목적을 넉넉히 이루도록
-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말씀으로 양육 받고 실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